

1. 구약 시대는 어떻게 헌금을 했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헌금은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나 교회 공동체와의 연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금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성서에서 소개되는 헌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헌금을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속전, 첫 열매, 십일조, 제사의 제물, 성막·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입니다.

1. 생명의 속전(출 30:11-16)

모세가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반 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인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의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헌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반 세겔을 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성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과 공동체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헌금이었습니다.

2. 첫 열매

또 다른 헌금 형태는 첫 열매입니다(출 13:2)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레위인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첫 가축은 은 5세겔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땅의 첫 열매, 즉 곡식이나 과일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으며, 이 헌금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민 18:12f). 첫 열매 헌금은 단순히 재물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생명과 생산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십일조

십일조는 구약에서 매우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최초 언급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드린 사건입니다(창 14:20). 이후 성경에서는 여러 형태의 십일조가 소개됩니다. 가축의 십일조(민 18:21-24), 레위인의 십일조(민 18:25-32), 잔치의 십일조(신 14:22-27), 구제를 위한 십일조(신 14:28f; 26:12-15) 십일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과 공동체적 책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제사의 제물(레 1-7장)

제사의 제물은 개인의 죄, 감사, 속죄, 화목 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번제물: 소, 양, 염소 수컷 또는 비둘기 새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린 후, 제물 전체를 불사름.
- 소제물: 곡식과 기름, 유향, 소금으로 만든 제물. 가루 상태로 또는 구워서, 삶아서 하나님께 드림.
- 화목제물: 소, 양, 염소 수컷·암컷으로 드림. 당사자가 직접 안수하고 잡음.
- 속죄제물: 죄의 주체에 따라 제물 종류가 달라짐. 여력이 없으면 비둘기 또는 가루 십분의 일을 드림.
- 속건제물: 숫양을 제물로 드리고, 당사자가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해 보상, 제사장에게 드림.

제사의 제물은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며, 헌금과 제사 행위가 결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5. 성막/성전 건축 예물

성막과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은, 광야 시대와 다윗 및 포로 귀환 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 헌신으로 드린 특수하고 희귀한 헌금이었으며,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적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의무적 헌금: 생명의 속전, 첫 열매, 이스라엘 및 레위인의 십일조, 잔치 및 구제 십일조

비정기적 헌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특수·희귀 헌금: 성막·성전 건축 예물

즉, 구약시대에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공동체적 책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 첫 열매, 십일조 등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단순히 금전적 행위로만 여기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고백으로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성막/성전 건축, 구제를 위한 십일조와 같이 헌금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나 공동체를 위해 헌금할 때 느끼는 책임감이나 기쁨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공동체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 _____

- 첫 열매 헌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 _____

-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속죄, 화목,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나의 삶 속에서 헌금을 통해 감사나 회복, 화목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 모든 소유가 당신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과 일용할 양식, 그리고 능력과 재능이 당신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속에 당신께 대한 감사와 신뢰가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삶을 깊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 물질, 삶 전체를 당신께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